



함덕서우봉해수욕장 피서객 절기상 초복이자 주말인 16일 제주도 조전을 함덕서우봉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관광업계도 긴장

제주 일주일 확진자 전주보다 갑절 이상 늘어 단체 관광·행사·전세기 상품 예약 취소 잇따라 제주공항·관광지에 검역·방역 요원 추가 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감소세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자 제주도내 관광업계가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일상회복 이후 모처럼 활기를 띠던 단체관광·행사에서 벌써부터 일부 예약 취소가 나오고 있어 관련 업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공항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지원해 안심 관광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0~16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96명으로 지난주(3~9일) 2505명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일일 확진자는 10일 359명, 11일 541명, 12일 964명, 13일 854명, 14일 878명, 15일 976

명, 16일 1033명으로, 하루 평균 799명이다. 월별 확진자는 지난 1월 846명, 2월 2만6461명, 3월 13만 6155명으로 늘어났다가 4월 5만 4814명, 5월 1만2263명, 6월 4050명으로 감소하다 이달 현재까지 8524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오랜만에 휴가철 대목을 기대했던 도내 관광업계는 이같은 코로나19 재유행 분위기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실제로 수학여행, 마이스(MICE), 기업 세미나 등 단체관광·행사 예약이 일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면 하반기에 잡힌 단체 관광 예약들마저 대거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단체관광 관련 업계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더욱이 제주관광의 핵심 잠재시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세기 상품을 추진할 예정이던 제주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업계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를 속속 취소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도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체관광 수요가 반짝 늘어나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손님들이 불안감에 관광을 꺼려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대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수학여행단 수요인데 9~10월 몰려 있는 수학여행단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될까봐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9월부터 제주와 베트남 하롱베이, 하노이 노선으로 전세가 운항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전에 모두 취소됐다”며 “제주와 베트남 다낭 노선 전세기 운항도 취소되는 등 다른 여행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관광지 주변 상권들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숙박업을 하는 심모(58)씨는 “개별여행객만 받고 있는데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몰라 걱정된다”면서 “자체 방역 열심히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등 7개 지방공항에 총 140여명의 검역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 검역 대기 라인 질서 유지와 승객 분류, Q코드 입력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전국 주요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방역·관료원(신규 인력 510명 포함 총 2500여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실내소독, 환기 등을 할 예정이다. 제주에는 현재 도내 주요 관광지에 48명의 방역·관료원이 배치돼 있으며 이번에 신규 인력 22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박소정기자

중국 저염분수 확인... 제주바다 '비상'

서남부 해역서 지름 30km 저염분수 덩어리 발견 제주도, 무인해양관측장비 투입 예찰활동 등 강화

제주 서남부 해역에 저염분수 덩어리가 확인되면서 도내 수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중국 양쯔강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대비 예찰조사 결과, 저염분수 수괴(물덩어리) 발생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연구과 조사팀은 지난 12~13일 제주 서남쪽 100km 해역 9개 정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관측결과 조사지점 중 서남부 약 66km 해역에 지름 30km, 두께 약 10m의 저염분수 수괴(25~26 psu)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저염분수 규모는 소형으로

제주 연안으로의 유입은 향후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이동경로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현장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상황 악화로 조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무인해양관측장비를 조사해역으로 투입하고 실시간 예찰을 통해 저염분수 수괴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현재 고수온·저염분수 규모는 소형이나 제주 연안으로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 첫 민간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제주도 오동동에 '아라자연휴양림 개발사업'

제주도, 사업시행 승인 고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민간사업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유한회사 아라농어촌휴양림이 제출한 '아라자연휴양림 개발사업' 시행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을 승인 고시했다.

제주에서 기존 절물자연휴양림 등 도 차원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라자연휴양림은 제주도 오동동 약 27만㎡ 부지에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 야외취사장 및 야외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26만 9010㎡이

며, 이중 약 10%인 2만6967㎡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만 이뤄진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녹지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발 시설에는 휴게음식점·오토캠핑장 등 편의시설뿐 아니라 산책로, 반려동물 운동장, 입업체험시설, 산림공원 등 체험교육시설과 숲 놀이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과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공영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668
잠정집계 17일	누적 24만8442
*17시 기준	

2022.07.14.
질병관리청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4차접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접종대상** | 50세 이상 연령층(1972년생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
- **접종방법** | ① 당일접종(7.18.(월)-)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② 사전예약(7.18.(월)-), 예약접종(8.1.(월)-) |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대리예약 가능),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관한 정보는 코로나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